

령도자의 구상과 결심은 곧 인민의 실천

지금 공화국의 인민들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3차 전원회의의 사상과 정신을 높이 받들고 올해를 기어이 자랑찬 승리의 한해로 빛내이기 위해 과감한 총돌격전을 힘차게 벌이고 있다. 평양시 1만세대 살림집 건설철을 비롯하여 그 어디서나 혁신과 비약의 기상이 나래치고 인민의 새 기적창조의 열의는 하늘을 찌를 듯 높다.

시련과 난관은 여전히 공화국의 앞길을 가로막고 있지만 누구도 비관하거나 주저하지 않는다. 모두가 앞을 내다보며 기세차게 내달리고 있다.

무엇이 공화국의 인민들로 하여금 승리의 신심안고 기세충진하여 내달리게 하고있는 것인가. 그것은 자기 위업의 정당성과 승리에 대한 굳은 확신이다. 다

시말하여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탁월한 령도가 있어 우리는 반드시 부강번영하리라 하는 억척 불변의 신념이다.

조선에서 령도자의 구상과 결심, 국가의 모든 로선과 정책은 다 인민을 위한 것으로 되고 있다.

얼마전에 진행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3차 전원회의에서 중요하게 토의된 문제도 인민생활을 안정상시시키고 온 나라의 어린이들에게 젖먹이를 풍족히 먹이기 위한 육아정책이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천리해안의 예지, 탁월한 선견지명으로 조성된 주객관적조건과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국가가 나아갈 정확한 로선과 정책을 제시하시고 그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방도에 대해서도 뚜렷이 밝혀주셨다.

올해의 상반기기간에만도 여러 차례의 중요회의를 열어 지도하시면서 조국의 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한 참으로 강령적인 가르치심을 주셨다. 올해 정초에 열린 력사적인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에서는 인민경제전반을 활성화하고 인민생활을 향상시키기 위한 특정한 토대를 구축할 수 있게 하는 가장 과학적이고 혁명적인 경제전략인 새로운 5개년계획을 제시해주셨고 2월에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2차전원회의에서 새로운 5개년계획수행의 첫해부터 실제적인 변화, 실질적인 전진을 가져올 수 있는 구체화된 실천의 무기, 혁신의 무기를 안겨주셨다. 또 지난 6월

에 진행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3차전원회의에서는 가장 엄격한 환경속에서도 중대결정들을 내려 조국의 번영과 인민의 복리를 지켜주시고 난관과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힘과 의지를 보여주셨다. 력동의 시대를 열어나가도록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셨다.

진정 그이께서 가르쳐주시는 것은 가장 현명하고 정당한 것이며 그 승리는 확정적이다.

하기에 누구나 감탄을 금치 못하고 그이의 탁월한 예견의 령도만 따르던 그 어떤 고난과 역경도 이겨내고 우리 공화국은 승리한다는 것을 굳게 확신하고 있다.

지나온 10년세월을 뒤돌아보아도 령도자의 결심은 언제나 실천으로 이어졌다. 우리 공화국에서 령도자가 결심하여 못내일 일

민을 위한 창조물들이 도처에서 솟아나 행복의 웃음소리가 온 강산에 차넘치게 하였다.

지난해도 인민이 령도자의 구상과 결심을 받들어 어떤 놀라운 기적을 창조해내기를 여실히 보여준 격동의 한해였다.

지난해 공화국의 앞길을 가로놓인 시련과 난관은 한두가지가 아니었다.

그러나 공화국의 인민들은 령도자의 호소에 산악같이 일떠섰다.

경애하는 그이께서 태풍피해현장에서 보내신 서한이 발표된 다음날 하루동안에만도 수도 평양의 수십만 당원들이 피해복구전에 용감히 단결해나섰으며 최정예수도당원사단들이 현지로 긴급진출하는 격동적인 사면이 일어났다. 그런가 하면 각지의 피해지역으로 달려나간 인민군인들은 낮과 밤이 따로 없는 치열한 복구전투를 벌여 피해복구의 첫 승전을 높이 올렸다.

이렇듯 지난해 자연재해를 가시기 위한 투쟁의 날과 달은 말 그대로 령도자의 구상을 실천으로 만드는 공화국인민들의 투쟁기질과 본때를 힘있게 과시하는 날이었던 실천이고 그 승리는 과학이라는 것은 온 세상에 증명한 듯이 날날로 되었다.

진정 령도자는 인민을 위해 웅대한 구상을 펼치고 인민은 그이의 구상과 결심을 찬란한 현실로 꽃피우는 바로 이것이 공화국에서만 볼 수 있는 인민대중제일주의정치의 위대한 화폭이다.

령도자의 구상과 의도를 받들어 언제나 승리의 개가만을 높이 울려가는 공화국의 인민들은 더 큰 분발력으로 새로운 전진의 시대, 력동의 시대를 열고 사회주의건설을 더욱 활력있게 전진시켜나갈 것이다.

본사기자 주일봉

얼마전 공화국에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2차 정치국확대회의가 진행되었다.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 결정관철을 위한 투쟁으로 온 나라가 부글부글 끓고있는 가운데 열린 이번 정치국 확대회의는 줄기찬 전진도상에 난관이 증첩될수록 더 큰 투쟁력과 분발력으로 새로운 고조기를 확신성있게 열어나가는 조선로동당의 불패의 령도력과 당풍을 과시한 의의깊은 계기로 되었다.

전당이 인민을 위하여 복무함을 당건설과 당활동의 출발점으로, 절대불변의 원칙으로 하는 것이 바로 조선로동당의 당풍이다.

이 세상에는 수많은 당들이 존재하며 당들마다 자기의 투쟁강령과 리념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조선로동당처럼 인민을 위해 그 무엇도 아끼지 않으며 필요하다면 목숨까지도 서슴없이 바치는 멸사복무를 자기의 고유한 존재방식, 당풍으로 확립한 당은 없다.

조선로동당의 총비서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언제나 인민을 위한 멸사복무정신은 자신의 들도 없는 인생관이며 위대한 수령님들로부터 물려받은 유산중의 유산이라는 가슴뜨거운 말씀을 하셨다.

인민에 대한 멸사복무정신, 바로 여기에 위대한 수령님들처럼 인민을 위해 헌신의 한결을 꽃피우며 이어가며 공화국인민들은 세상이 부러워하게 보란듯이 내세워주시려는 경애하는 그이의 웅대한 리상과 포부가 비껴없고 조선로동당의 존재방식, 당풍은 영원히 인민에 대한 멸사복무라는 확고한 의지가 맥락하고있는 것이다.

돌이켜보면 경애하는 그이께서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하신처럼 여기는 우리 인민을 수령님과 장군님의 영상으로 정히 새겨안고 수령님들을 모시듯이 받들어나가 한다시며 인민을 위해 길고결연한 멸사복무의 길은 그 얼마인지 모른다. 그 길에는 사랑하는 인민들과 아

이들에게 하루빨리 최상급의 병원을 안겨주시려 쏟아지는 폭우속에서 일이 돌아보신 건설현장의 험한 길도 있었고 큰물과해를 입은 인민들에게 행복의 보금자리를 안겨주시려 달려가신 수천리 하늘길, 바다길, 령길도 있었다.

땀에 젖은 옷자락이 마를새 없이 인민을 찾아 줄기차게 이어가신 삼복철강행군, 공화국의 존엄과 지위를 최상의 경지에 올려세우시려 사생결단의 의지로 헤쳐가신 심야강행군, 려이어 현지지도의 길을 이어가신 초당도강행군...

조대없는 시련과 난관이 려속 겹쳐들었던 지난 한해에도 경애하는 그이께서는 조선로동당의 자옥만을 새기도록 손잡아 정력적으로 이끌어주시었다.

지금과 같은 때에 다른 그 누가 아닌 우리 당이 그들을 전적으로 책임져야 하며 인민들이 겪는 고통을 함께 하고 그것을 덜어주기 위하여 그들중으로 더다가가 한다고 하신 경애하는 그이의 따뜻한 사랑과 정의 손길에 의해 이 땅에서는 수재인들이 군당정사에서 편안히 지내고 일꾼들은 야외에 천막을 치고 사업하는 세상에 처음 보는 전설같은 이야기가 터어나고 불과 몇달사이여 행복의 보금자리들이 일떠서 인민의 웃음소리, 로동당탄세소리가 강산에 차넘치게 되었었다.

조선로동당을 인민을 위해 멸사복무하는 심부름군으로 강화발전시키시려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의지는 확고부동하다.

그이께서는 올해에도 당대회와 당전원회의들을 열어 지도하시면서 조선로동당이 인민을 위하여 멸사복무해나가도록 정력적으로 이끌어주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 탁월한 령도밑에 인민에 대한 멸사복무의 한결만을 가는 조선로동당에 대한 인민의 기대와 신뢰는 날로 더욱 높아가고 두터워지고 있다.

신기복

오로지 인민을 위해 멸사복무하는 당이만



공화국의 그 어디서나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지니신 숭고한 후대사랑, 미래 사랑의 세계를 전하는 전설같은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다.

서해기슭의 최전연철소소에 가면 경애하는 그이께서 여러 차례 만나주시고 사랑의 축복을 안겨주신 복 받은 어린이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 동해기슭의 풍치수려한 곳에 가면 그이께서 다녀가신 멧정어울아원, 애육원을 볼 수 있다. 온 나라 원아들에게 공급할 물고기 공급량도 정해주시고 년간 그 수량이 얼마나 되었는가를 몸소 계산까지 해보신 이야기에도, 녀성들과 아이들이 즐겨 찾는 평양아동백화점에 꾸러진 실내용이러도 어린이들을 위해 마음쓰시는 그이의 다정한 정이 어려웠다. 새해를 맞은 원아들을 위해 온 하루를 바친 설날에 대한 이야기, 전국의 육아원, 애육원, 초등학교, 중등학교원 원아들은 모두 자신의

아들딸들이라고, 자신께서는 자식이 제일 많은 자식부자라고 하신 가슴뜨거운 이야기, 아이들이 울린 편지를 보여주신 사랑의 축복을 보내주신 이야기... 감동과 눈물없는 들을 수 없는 그 이야기들, 많고 많은 사연들을 다 꼽자면 끝이 없다.

하기에 공화국인민들은 누구나 이렇게 말한다. 경애하는 그이께서 이 세상에 아이들을 제일로 사랑하시는 분이시라고.

언제인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평양어린이 식료품공장을 찾으시었을 때의 일이다.

제품본질에 틀리시어 공장에서 만든 갖가지 식료품들을 하나하나 보여주신 경애하는 그이께서는 동행한 일군에게 이제는 제품의 다양화를 실현해야겠다고 하시며 제품의 영양학적, 위생학적으로 보강할 수 있는 조건에서 제품을 맛있게 만들기 위한 새로운 목표를 세워야 한다고, 맛을 가지고 다른 나라와 경쟁을 해야 한다고 전진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셨다.

경애하는 그이의 말씀에 공장일군은 격동된 심정을 금치 못하였다.

식료품의 맛을 가지고 경쟁을 벌리는데, 이것은 곧 제품의 질을 높이는 문제였고 세계를 앞서나갈데 대한 목표였다.

하다면 과연 무엇을 기준으로 삼아야 하는가? 그의 이러한 생각을 헤아리신듯 경애하는 그이께서는 아이들의 입은 속이지 못한

다고, 아이들의 입만금 예민한 것은 없다고, 갓난아이들도 맛은 못하지만 맛은 안다, 같은 우유가루라도 아이들이 이 공장의것보다 다른 나라의것을 잘 먹으면 이 공장의것은 맛이 없다는 것이 라고, 평양어린이식료품공장에서 만든 제품의 질에 대한 평가기준은 아이들이 즐겨 찾는가 찾지 않는가 하는 것이라고 가르쳐주셨다.

평가기준은 아이들의 입! 정녕 그것은 경애하는 그이의 후대사랑의 세계가 얼마나 넓고 뜨거운것인가를 다시금 일깨워주시었다.

얼마전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3차전원회의에서는 당의 육아정책을 개선 강화할데 대한 문제가 중요하게 토의되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조국의 미래인 어린이들을 튼튼하게 잘 키우는것보다 더 중대한 혁명사업은 없으며 수천수만금을 들여서라도 보다 개선된 양육조건을 지어주는것은 우리 당과 국가의 최중대정책이고 최고의 숙원이라고 강조하시면서 국가적부담으로 전국의 어린이들에게 영양식품을 공급, 어린이들을 위해서라면 천만금도 아끼지 않으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경애하는 그이께서는 이 땅에는 이런 전설같은 이야기들이 계속 꽃피어나게 될것이다.

리혜성

공화국인민들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진 숭고한 화폭들 가운데는 흥인지 날리는 문수물놀이장건설현장이 나오시어 최상의 수준으로 건설하여 인민들에게 안겨줄데 대한 강령적인 가르치심을 주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영상이 있다.

인민들에게 안겨주시는 사랑의 선물인 문수물놀이장에 단 한점의 미흡한 점이 있을세라 그이께서 보아주신 물놀이장형성안만도 무려 113건에 달한다.

인민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그의 마음속에 귀중하게 자리잡았는 가 하는것은 그이께서 보아주신 형성안의 수차례가 전하여준다.

오늘 백두산아래 첫 동네로부터 시작하여 온 나라를 짙은 수많은 현대적인 인민의 보금자리들과 문화유원지를 하나하나에는 그 어느것이나 다 인민을 위하여 기울인 정성이 숨배어있다.

인민의 리상대로 전변된 삼지연 땅의 천지개벽도 경애하는 그이의 끝없는 사색과 심혈을 떠나 말할 수 없다.

삼지연을 모든 면에서 현대적인 산간도시로 면모를 훌륭히 갖춘 본보기로 꾸리기 위하여 그이께서는 8 000여건이나 되는 형성안을 지도하여주셨다. 8 000여건.

그이께서는 어느 한순간의 휴식도 없이 인민을 위한 사랑과 로고의 낮과 밤을 이어오셨다.

양덕온천문화휴양지를 사랑하는

인민의 마음속에 빛나는 화폭들

미흡한 점이 있을세라

인민들에게 안겨줄 또 하나의 선물을 마련하기 위하여 휴양지개발을 맡기신 경애하는 그이께서는 비내리는 곳날, 이른새벽 가림없이 건설현장을 찾고 또 찾으셨다.

양덕온천문화휴양지를 가장 훌륭하게, 완벽하게 일떠세우시는 나날에 그이께서 지도해주시신 형성안은 무려 2 000여건에 달한다.

이런 감동있는 사연을 담고있는 이야기들을 다 전하자면 끝이 없다. 언제나 경애하는 그이께서 현지지도의 길에서 아이들의 모습을 오래도록 지켜보신 일이 있었다. 아이들이 학교로 가고있었는데 한

손에는 책가방을 들고 다른 손에는 악기와 소지품들까지 들고 가느라 불편하게 걸음을 옮기고있었다.

활생소년들의 모습을 눈여겨보신 경애하는 그이께서는 배낭식가방을 만들어주면 얼마나 좋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시었다.

하여 그이께서는 해당 부문 일군에게 아이들에게 멋진 배낭식가방을 만들어주도록 할데 대하여 이르시었다.

그리시고는 자신께서 연구하신던 100여종이나 되는 가방생산과 관련한 참고자료들을 해당 부문에 보내주시고 직접 보아주신 도안만 해도

450여건을 헤아린다.

어느 하루한시도 그의 사색속에 인민이 없었던 그이 경애하는 그의 모든 령도의 자욱자욱은 오직 인민으로 출발하여 인민으로 끝나는 위민헌신의 려정인 것이다.

그의 사랑속에 인민들의 랑만의 웃음소리는 더 높이 울려가고 이 땅은 더욱 아름답게 변모되고 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보아주신 형성안과 도안수자는 단순한 수가 아니다.

거기에는 계산해낼수도 상상해낼수도 없는 무한대한 인민사랑의 세계가 담겨져있고 끝없는 헌신과 로고, 심혈과 사색이 깃들여있는 것이다.

인민의 행복이 더더욱 커만 가는 휘황한 미래가 담겨져있는 것이다.

본사기자 리경월

이 선물식물은 위대한 김일성주석께 주체82(1993)년 9월 중국 남경 중산식물원 원장 하신안이 올린 것이다.

하산안은 세계인민들의 다함없는 존경과 신뢰를 받고 계시는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열렬한 경모의 정을 소중히 간직하신 식물학자의 한 사람이다. 그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중국을 방문하시었을 때 남경시민들이 올린 꽃을 보시고 꽃이 매우 곱다고 말씀하신 사실을 잊

지 않고 있었다.

이런 그였기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장진 45돌에 즈음하여 공화국의 창건자이신 위대한 수령님의 업적을 만대에 길이 칭송하며 조선인민을 축하하려는 마음으로부터 자기 식물원에서 제일 귀중히 여기던 능소화를 선물로 정성껏 준비하여 중국을 방문한 조선대표단 단장에게

본사기자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인민들과 한치의 간격도 두지 않으시고 언제나 겸손하게 생활하셨다.

경애하는 그이께서 주체 104(2015)년 1월 어느날 원산시두공장을 두번째로 찾으시었을 때의 일이다.

만면에 환한 미소를 지으시고 원래의 모습을 전혀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변모된 공장안의 곳곳을 주의깊게 돌아보시던 경애하는 그이께서는 구두진렬대앞에서 걸음을 멈추시었다. 첫 보기에도 질이 뛰어나진 것이 아니라 이한 형태의 남부구두들을 하나하나 세심히 살펴보시던 그이께서는 만족한 어조로 구두진렬대에 공장에서 생산한 구두들을 전시해놓았는데 다

팬했다고 높이 치하하셨다. 그러시면서 그이께서는 구두들의 무게를 달아보라고 하시었다.

공장일군이 여자구두 한 켤레를 저울판에 올려놓자 그이께서는 직접 눈금을 지켜보시었다.

한켤레 또 한켤레... 잠시후 구두들의 무게를 달아보신 경애하는 그이께서는 고개를 가볍게 끄덕이시며 공장에서 구두를 가볍게 만들려고 예를 많이 쓴것 같다고 하시면서 로동자들과 기술자들의 수고를 높이 치하하시

인민들과 똑같이

었다.

일군들의 시선이 약속이라도 한듯 일시에 그이의 신발에로 향했다.

진렬대우의 구두와 특별히 차이나는것이 없는 평범한 구두였다.

한 나라 령도자께서 어쩌면 저렇듯 수수한 구두를

신고계신단 말인가. 일군들은 놀라움과 충격, 뜨거움이 엇갈려 더 말을 잊지 못했다.

몇해전 1월에는 또 이런 일도 있었다.

새로 일떠선 미래상점을

돌아보시던 경애하는 그이께서는 양말매대에 놓여있는 《철쭉》표양말 한켤레를 드시더니 몸소 자신께서 신으신 양말과 대비해보시는 것이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일군들은 한순간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그이께서 신으신 양말

도 《철쭉》표양말이었던 것이다.

경애하는 그이께서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는 일군들에게 미소를 지어보시며 내가 신은 양말이 여기에 있는 것과 똑같다고 놀라게 데 나도 평양양말공장에서 만든 양말을 신었다고, 지난 시기 우리가 만든 양말은 몇번 신으면 양말목의 고무줄이 늘어나는것이 결함이었다고, 장군님께서도 평양양말공장을 현지지도하실 때 그에 대하여 지적하시었는데 양말의 질을 더 개선하도록 하여야 하겠다고 말씀하시었다.

그때 그곳에 있던 일군들 누구라 없이 뜨거운 격정에 휩싸였다.

본사기자 전명진

민족의 단합과 통일을 위한 역사적로정

민족 통일전선 형성방안 제시

1970년대 중엽 남조선의 군사독재(정권)은 7.4공동성명의 기본정신에 배치되게 《대화있는 대결》, 《대화있는 경쟁》을 부르짖으면서 공화국에 대한 적대감을 약탈하게 고취하였다. 또한 《반공》소동에 열을 올리는 한편 《두개 조선》 조작책동에 집요하게 매달리면서 북남사이의 대결을 더욱 격화시켰다. 공화국은 통일의 앞길에 난관과 장애가 겹쌓이는 환경속에서도 조성된 난국을 타개하고 민족적단합과 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투쟁을 보다 적극 벌여나갔다.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는 주체64(1975)년 10월 9일 조선로동당창건 30돐 기념대회에서 하신 역사적인 보고에서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공화국정부의 확고한 립장과 그를 위한 전국적인 민족통일전선을 형성할데 대한 방침을 제시하시였다.

이룩하기 위한 중요한 담보라고 밝혀주시였다. 그리시면서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고 조국의 통일을 바라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사상과 리념, 제도와 신앙의 차이를 초월하여 조국통일의 기치밑에 단결하여야 한다고 교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은 공산주의자와 민족주의자사이의 투쟁이 아니라 애국자와 애국자사이, 민족자주세력과 제국주의침략세력사이의 투쟁으로서 이 투쟁에서 북반부의 공산주의자들과 남조선의 민족주의자들은 얼마든지 단결할수 있으며 합작할수 있다는것, 전국적인 광범한 민족통일전선을 형성하기 위하여서는 북과 남이 서로 존중하고 신뢰하며 차이점은 뒤로 밀고 공통점을 찾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는것, 남조선의 《민주공화당》을 포함한 모든 정당, 사회단체, 개별적인사람과 어느때든지 조국통일문제를 가지고 협상할 용의가 있으며 조국통일을 위하여 그들과 단결하고 합작할 준비가 되어있다는것 등에 대하여 엄숙히 천명하시였다. 민족의 대단결로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길을 밝혀준 이 방안은 온 겨레의 통일열기를 북돋아주었다.

1976년 7월 3일에 발표된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중앙위원회와 북측 북남조절위원회의 련합성명 그리고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결성 30돐 기념보고회에서는 민족대단결의 원칙에서 전국적인 민족통일전선을 형성해야 한다는것을 강조하고 남조선의 정당, 사회단체들과 각계층 인민들이 대민족회의소집을 위한 거족적인 투쟁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설것을 호소하였다. 특히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결성 30돐 기념보고회에서는 나라의 통일을 열망하는 전체 조선인민의 한결같은 념원을 담아 북과 남의 정당, 사회단체들과 각계층 인민들 그리고 해외동포들까지 참가하는 대민족회의를 시급히 소집할것을 남조선의 각 정당, 사회단체들과 각계층 인민들에게 제의하는 편지를 보내였다. 1977년 1월 25일 평양에서는 조선로동당, 조선사회민주당, 천도교청우당,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중앙위원회를 비롯한 공화국의 18개 정당, 사회단체가 참가한 련석회의가 열리였다. 제 정당, 사회단체련석회의에서는 북과 남의 단합된 힘으로 민족의 영구분열과 전쟁의 위험을 제거하고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앞당기기 위한 새로운 통일방안을 토의하고 남조선 제 정당, 사회단체들과 각계층 인민들, 해외동포들에게 보내는 편지를 채택하였다. 편지에서는 나라의 통일을 앞당기기 위한 4개 항목의 통일방안이 제시되였다. 회의에서 제시된 4개 항목의 제안은 안팎의 분열주의세력의 책정으로 말미암아 영구분열과 전쟁의 위험이 시시각각으로 짙어가고있는 정세의 절박한 요구를 정확히 반영한 새로운 현실적대책이였으며 민족내부문제를 자체의 힘으로 풀고 통일의 길을 헤쳐나가기 위한 애국적책대책이였다. 특히 여기에서 북남대련합의 방안은 온 민족을 조국통일의 기치아래 굳게 묶어세워 분열주의세력에 대한 통일세력의 결정적우세를 보장할수 있게 하는 정당한 방안이며 조국통일을 우리 민족자체의 힘으로 실현할수 있는 확고한 담보를 마련해주는 지침이였다. 온 겨레는 제 정당, 사회단체련석회의에서 제기된 4개 항목의 통일방안을 통일문제 해결에 새 국면을 열어놓는 획기적이며 근본적인 대책이라고 인정하면서 그를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열렬히 환영하였다. 강현철

애국자와 애국자사이의 투쟁이다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은

1970년대 중엽에 들어와 조선반도에서는 통일세력과 반통일세력간의 투쟁이 치열하게 벌어지고있었다. 그 때는 외세에 의하여 갈라진 민족의 혈맥, 동동강난 조

국적 허리를 잇는 조국통일이다. 외세에 빌붙어 자기 개인의 향락만을 위해 민족 분열을 추구하는자들이야말로 애국노조의 일대애국노조들이라. 그들이 지난날 나라를 팔아먹은 《울사오적》들과 다른것이 무엇이란 말인가. 이 천하의 애국노들이 지금 조국통일을 넘넘하는 온 민족의 열망에 찬물을 끼얹으며 《두개 조선》 조작책동으로 우리 조국을 영원히 둘로 갈라놓으려고 책동하고있다. 그렇다. 오늘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은 그 어떤 리념상의 투쟁이 아니라 통일을 원하는 애국세력과 민족분열을 추구하는 애국노들과의 투쟁이다. 대표단성원들의 가슴은 천하의 사대애국노들에 대한 치맛은 격분으로 하여 더욱 끓어번졌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우리 민족의 영구분열을 추구하는 내외분열주의세력의 반통일적행위들에 대하여 구체적 실례들을 들어 까발하시며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시종일관 온 민족이 단결하여 조국을 통일할것을 주장하고있습니다. 진실로 나라를 통일하려는 사람들은 애국자들이며 나라를 분열시키고 팔아먹으려는 놈들은 애국자들입니다.》 참으로 애국자와 애국노를 가르는 기준이 어디에 있는

가를 밝힌 고귀한 가르침이였다. 총련인민들의 가슴속에는 조국통일을 진실로 바라는 애국세력이 굳게 손잡고 애국노들을 반대하는 투쟁을 힘있게 벌린다면 우리 겨레가 그토록 념원하는 통일은 반드시 이룩될것이라는 신심이 차올랐다. 이어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조국통일운동을 더 적극적으로 벌려나가기 위한 총련의 과업들을 밝혀주시였다. 그이께서는 총련이 각계 각종 동포군중을 조국통일운동에 적극 조직동원하는 한편 일본에 오는 남조선인민들을 잘 교양하여 애국자로 만들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남조선인민들에게 조선은 반드시 통일되어야 한다는것을 잘 이야기해주어 그들을 각성시켜야 한다고 교시하시였다. 자신들이 맡고있는 역할의 중요성을 깨우쳐주시며 온 겨레를 조국통일을 위한 애국의 한길로 이끌어주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를 새겨안으며 총련인민들은 제일동포들뿐아니라 남조선인민들의 가슴속에 통일애국의 참된 념을 심어주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벌려나갈 마음속결의를 굳게 다지였다. 본사기자 최광혁

통일을 불러 공화국의 첫 여성상 (3)

한팔을 통해서 잡고도 한팔을 서해에 드리우고 발걸음으로 남해를 어루만지며 천하를 굽어보는 조선의 거인 백두산! 너 이제 허리를 펴고 하늘의 구름을 휘어잡고 일어설것 히말라야도 알프스도 우랄

도 로키도 발발의 티끌이 되리 그후 1980년대 초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사람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 더 많이 일하는 데서 보람을 찾을수 있다고 하시면서 그를 몸가끼이 부르시어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비서의 중임을 맡겨주시였다. 지금껏 안겨준 믿음과 은덕에 천만분의 일도 보답을 못했는데 또다시 대해같은 믿음을 안겨주시는 위대한 장군님을 우러르며 선생은 그 크나큰 기대에 마음뿐이지 보답할것 같지 못하다고 솔직히 말씀드리였다. 그러는 그를 바라보시며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나이가 많아도 얼마든지 할수 있다고, 광복직후 수령님을 모시고 사업하던 일본세로 일하면 된다고 하시면서 오래동안 귀중한 가르침을 주시였고 앞으로 사업하는 과정에 동무에게 힘이 모자라면

내가 밀어주고 나에게 힘이 모자라게 되면 동무가 나를 방조하면서 우리 서로 손잡고 일을 잘해나가야 하겠다 그 때없는 믿음을 안겨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그후에도 그가 매일 밤도록 일하는것을 아시고는 사업에서 무리하지 않도록 취해주시고 선생이 힘이 부치지 않게 주로 해외동포들과의 사업, 대외활동 등을 하도록 하시였다. 이렇듯 그이의 사랑은 불사약이 되어 선생은 70살이 넘은 몸이었으나 청춘의 활력을 안고 민족대단결과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투쟁에 모든 정력을 다 바쳤다. 선생은 조국통일을 위한 공화국과 해외동포들간의 대화에 참가하여 그들이 민족의 단합과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실현하는 길에 적극 합류해나서도록 하였다. 후날 그때를 회고하며 어느 한 재미동포는 이렇게 말

했다. 《그는 70고령에도 불구하고 동포들과 현대하여 민족의 단합과 통일을 위한 사업의 선두에서 서서 지도역할을 해왔다. 그 많은 일들을 해낼수 있었던 비결은 정열이 어디로부터 온것인지...》 그 때의 정열은 바로 백두산절세인민의 한량없는 사랑과 믿음으로부터 온 것이였다. 그 사랑과 믿음속에 선생은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의장(1978. 8-1991. 6),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부위원장(1980-1989), 조선해외동포련회위원회 위원장(1980-1989) 등을 겸임하면서 민족과 통일을 위한 길에서 심신을 다 바쳐 일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허정숙선생의 공로를 높이 평가하시어 그에게 김일성훈장과 조국통일상을 수여하도록 하여주시고 여러 기회에 일군

로 세상을 떠났다는 비보를 받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그토록 가슴아파하시며 화환을 보내주시고 그가 마지막으로 남긴 편지를 비통한 마음으로 읽어보시고 《로동신문》에 크게 실도록 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허정숙동무는 광복직후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고 민족의 마지막까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성실하게 일하여온 충직한 동무였다고 하시면서 그의 시신을 아버지 허헌선생과 함께 심리애국렬사릉에 안치하도록 하고 유가족들에게 애국렬사릉을 수여하도록 배려해주시였다. 또한 다 부작에 슬영화 《민족과 운명》에 허정숙선생을 원형으로 하는 속편을 만들어 온 세상사람들이 다 알도록 내세워주시였다. 그때로부터 25년이 지난 2016년 5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뜻깊은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의 높은 연단에서 떠나간 혁명전사들의 이름속에 허정숙선생의 이름도 뜨겁게 불러주시였다. 참으로 허정숙선생의 값있는 한생은 위대한 태양의 빛발과 더불어 그 삶은 영생한다는 고귀한 진리를 깊이 새겨주고있다. 본사기자



해방후 조국의 품에 안긴 때로부터 위대한 김일성주석의 슬하에서 그의 남다른 사랑과 보살핌속에서 애국애족의 참된 길을 걸어온 허정숙선생은 로년기에도 위대한 김일성장군님의 자애로운 사랑속에서 인생고목에도 지지 않는 꽃이듯 민족대단결과 조국통일을 위한 길에 생의 뚜렷한 흔적을 남기였다. 그가 1960년대 하반기에 건강이 좋지 못하고 나이가 많아 사업을 그만두고 치료 받고있던 어느날이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허정숙선생의 집을 찾으시고 그동안 어떻게 지냈는가, 건강은 어떤가, 아들은 어디서 무엇을 하는가, 손자들은 몇인가, 생활에서 불편한것은 없는가 하는것을 자세히 알아보시였다. 신로심볼로라고 육신은 늙어도 마음만은 살아서 일을 하고싶다는 선생의 스투름 없는 이야기를 들으시고 그이께서는 그 생각이 귀중한것이라고 하시며 앞으로 일을 한다 해도 그렇고 젊은이들의 뒤바라지를 해도 그렇고 우선 건강해야 한다고, 그러니 아무쪼록 몸조리를 잘해야 한다고 뜨겁게 교시하시였다.

민중의 배척을 받기 어렵

남조선에서 《보안법》위반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전 《희망정치연구모임》 대표 황선의 무죄가 확정되었다고 한다. 웅대한 결과라 하겠다. 《보안법》으로 말하면 그 류례를 찾아볼수 없는 희세의 반통일과 쏘악법, 인권말살악법이다. 《보안법》은 세상에 빠져나오자마자 조국통일을 가로막고 남조선인민들의 자주적, 민주주의적권리를 강고리 짓밟았으며 역대 남조선의 통치자들은 이 악법을 인민탄압과 집권유지를 위한 퍼버린 살륙도로 삼아왔다. 공화국을 방문하거나 공화국의 주민을 만난 사람, 공화국의 현실에 공감하는 사람은 모조리 《중복》따지를 붙이고 극악한 반통일악법인 《보안법》에 걸려 가차없이 탄압한 사실들은 허다하게 많다. 황선녀성도 평양을 방문하여 자기가 보고 듣고 느낀 소감을 남녘의 주민들에게 사실그대로 전한것이 《죄》가 되어 동족을 《적》으로 규정한 악법논은 《보안법》의 희생물로 된 사람들중의 한사람이다. 한민족, 한겨레가 사는 공화국의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본 그대로 말한것이 어떻게 죄가 될수 있겠는

가. 이처럼 엉터리악법이 《보안법》이고 이 악법이 남조선에서는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식으로 남조선인민들의 자유와 권리를 짓밟고 투쟁을 탄압하는데 리용되어왔다. 지난 시기 《보안법》의 각종 독소조항들에 의해 철창속에 끌려가 종세기적인 고문과 처형을 당하고 수선신을 온갖 고통속에 살아온 《보안법》 피해자들의 원한은 구천에 사무쳐있다. 하기에 《보안법》은 오늘날에 와서도 말만 들어도 물서리를 치는 공포의 대명사로 되고있다. 오늘 남조선 각계층은 물론 국제사회에서도 《보안법》은 마땅히 폐지되어야 한다는 주장들이 강하게 나오고있다. 남조선언론들의 보도에 의하면 올해 들어와서도 《보안법》철폐를 위한 남조선인민들의 투쟁은 더욱 고조되고있다고 한다. 지난 3월 서울에서 《보안법폐지 국민행동》이 결성되었는가 하면 5월에는 《보안법》의 폐지를 요구하는 《국민청원》이 자기 이름을 올린 사람들이 열흘도 되지 않아 10만명을 넘어섰다고 한다. 또한 6월에는 《보안법》폐지를 위한 특별법안공동발의를 요구하는

대선시민단체의 투쟁, 《보안법》폐지를 요구하는 《초불종교생시민련대》의 투쟁, 민족통일에국청년회(민예청)의 시위행진 등 남조선 각계층과 시민단체들의 다양한 투쟁이 벌어졌다고 한다. 민심의 저주와 배격을 받는 《보안법》, 이 악법은 이미 죽은것이냐 마한가지이다. 남조선인민들의 민주주의적자유와 권리를 짓밟고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가로막는 파쇄대결악법인 《보안법》은 당장 없어져야 한다는것이 남녘의 확고한 민심이다. 본사기자 김영진



시론

검이나 구둣발이 어디서 밀려오느냐

올해는 제년에 다르게 폭염이 일찍 들어닥치었다. 해당 부문의 자료에 의하면 낮기온은 32°C 이상, 일부 지역에서는 35°C까지 오르고 대기습도는 70% 이상 되는 무더위현상이 지속될것이라고 한다.

폭염이 장마전선까지 밀어올렸다고 한다. 이 폭염도 문제지만 그보다 더한것은 조선반도의 남쪽에서 질어가는 전쟁의 검은구름이다.

얼마전 남조선호전세력은 전군주요지휘관회의라는데서 그 누구의 《상시도발》을 운운하며 외세와 야합한 《전비태세강화》, 《다양한 연합훈련강화》를 떠들었다고 한다.

그들이 그 누구의 《위협》을 운운하며 각종 전쟁연습을 벌리고 해외까지 날아가 상전이 주도하는 여러가지 다국적연합군사훈련에 기웃거리고있는것은 알려진 사실이다.

폭염보다 더한 전쟁광기, 동족대결열기에 들떠 핵전쟁의 검은구름을 조선반도에 몰아올리는 무분별한 망동이 아닐수 없다.

지금도 남조선인민들은 땀방울에 달아오른 아스팔트길을 행진하며 외세와의 합동군사연습을 중지하라, 평화를 수호하자고 웨치고있다. 조선반도의 평화와 남조선인민들을 비롯한 우리 겨레의 운명을 지키기 위해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세와 야합하여 《전비태세를 강화》하고 《다양한 연합훈련을 강화》하겠다고 떠들며대는것은 상전의 대조선침략정책, 패권적인 인디아태평양전략실현의 돌격대로 기어이 나서려고 하는 어리석은 행위라고 해야 할것이다.

사대매국과 외세의존병에 걸린 남조선호전세력은 《동맹》이라는 지겨운 사슬에 수년동안 얽매인것도 모자라 외세가 벌리려는 침략전쟁, 핵전쟁의 《대포박》 신세, 《전쟁머슴근》의 멍에를 스스로 짊어지고고 하고있다.

동족대결에 미쳐날뛰다 비참한 종말을 고한자들, 외세의 《대포박》으로 해외에 끌려갔던 사람들의 슬픈 운명을 외세저보아야 할것이다.

외세의 불장난에 끌려들어 칼고도 땀뻘기름을 하는 남조선호전세력의 망동은 조선반도의 정세를 위협하고 불안을 조성하는 총소리가 어디에서 울려나오고 전쟁위협이 검은구름, 핵전쟁의 불구름이 어디에서 밀려오느냐를 다 지금 명백히 보여준다.

정 필

합동군사연습을 반대하는 《민족추진위원회》 결성

남조선에서 《한미연합훈련 중단과 남북관계개선을 위한 민족추진위원회(민족추진위)》가 발족식을 하고 공식출범하였다고 한다.

《민주개혁혁신, 평화번영통일을 향하여 《초불전진》》, 《한국대학생진보연합》, 《평화이음》을 비롯한 45개 단체가 망라되어있는 《민족추진위원회》는 발족식에서 《초불전진》 준비위원회 위원장, 《한국대학생진보연합》 상임대표, 평화이음 리사를 비롯한 7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하고 결성선언문을 채택하였다.

결성선언문에서 참가자들은 미국 대조선적대시정책이 지속되고 조선반도문제에 실질적인 해결과 전진을 위한 정책전환의사가 전혀 없다는것이 확인되었다. 현 당국도 미

국의 눈치를 보면서 합동군사연습 중단에 침묵으로 일관하는 등 돌파의지를 보이지 않고있다고 비난하였다. 그러면서 그들은 집권여당이 합동군사연습중단을 비롯하여 조선반도긴장해소를 위한 구체적인 해결책을 세우지 않고있다고 하면서 현 정세를 돌려세우기 위해서는 초불세력이 전면에 나서 모든 주인의 힘을 모아 합동군사연습중단의 추동력을 만들어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결성식에서 참가자들은 단체를 실질적이고 기동적이며 실천적인 대대기구로 만들어 지금부터 합동군사연습중단이라는 목표달성을 위해 힘과 지혜를 모아 거대한 평화의 힘을 만들겠다고 하면서 앞으로의 활동방향을 제시하였다고

한다.

그에 따르면 《민족추진위원회》는 7월 24일까지 매주 토요일 《집경지역 평화행진》을 진행하고 《집경지역 안보와 발전》을 주제로 한 순회토론회를 개최하며 7월 27일부터는 해외동포들과 함께 《전쟁훈련중단, 남북대화개선을 위한 우리 민족 1시간초불행동》을 벌리겠다고 하였다. 이와 함께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을 비롯한 정당대표와의 면담도 추진하고 공동행동으로 미국과 남조선당국에 전쟁훈련중단을 촉구하는 서한을 발송할것이며 앞으로 참가단체수를 계속 확대하여 투쟁력이 강하고 목표달성을 위해 매진하는 진보연합운동체로 강화하겠다고 다짐하였다.

반전, 악법철폐투쟁의 불길은 해외에서든

최근 미국이 주도하는 전쟁연습중지와 남조선에서의 《보안법》 폐지를 요구하는 투쟁이 해외에서 활발히 벌어지는 가운데 제일동포들의 회의가 진행되었다고 한다.

남조선인민들이 전한데 의하면 지난 4일 《한미연합군사훈련중단과 보안법폐지를 요구하는 제일한국인대표자회의》가 일본 나고야에서 개최되었다고 한다.

참가자들은 《통일을 지향하는 세력들이 보안법철폐에 의해 시달리고있는 모순을 타파할수 있는 기회도 생겨나고있다. 오늘 데

표자외의를 시작으로 연합군사훈련중단과 보안법폐지를 요구하는 커다란 물결을 일본땅에서 만들어내자.》고 토로하였다.

어느 한 청년대표는 남조선미국합동군사연습중단을 결정할것을 남조선당국에 요구하면서 《한국에 비호적인 사회구조를 바꾸기 위해 보안법철폐는 필수적인 조건이다. 이제부터 청년이 반미자주투쟁의 선봉대로 투쟁해나갈것을 다짐한다.》고 결의하였다.

다른 청년대표도 《초불혁명을 배경으로 탄생한 정부조차 한미연

합훈련중단과 보안법철폐를 결정할수 없었던것은 아직도 5.16쿠데타세력이 한국사회에 뿌리깊이 만연하고있기때문이다.》라고 하면서 전쟁연습중단과 《보안법》철폐를 위한 본격적인 대중운동을 벌려나갈것이라고 토로하였다.

대표자회의에서는 남조선미국합동군사훈련중단, 《보안법》폐지와 모든 량심수석방, 조국의 평화와 자주통일실현을 위한 지속적인 투쟁 등의 항목이 제안되고 채택되었다고 언론들은 전하였다.

본시기자 류현철



본시기자 류현철

남조선의 보수야당인 《국민의 힘》이 제일 크게 떠드는것중의 하나가 《변화》이다.

그러나 그 《변화》라는것이 얼마나 새빨간 거짓인가는 시간이 갈수록 점점 드러나고있다.

5.18광주인민봉기를 외국남조선자를 당 사무총장자리에 앉히지 말라, 끼리끼리 계파싸움으로 날을 보내질 않나, 하는 일마다 구태와 악습이 되풀이되고있으니 말이다.

최근에는 여성가족부와 통일부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여 안팎의 못매를 맞고있는중이라고 한다.

여성가족부를 폐지해야 한다는 《리유》라는것을 들어보니 《녀성의 건강과 복지는 보건복지부가, 녀성의 직장내 차별은 고용노동부가, 성범죄와 가정폭력은 법무부와 검찰, 경찰이 담당하면 된다.》는것이다.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고 그 예산은 다른데 쓰겠다고 하였다.

통일부폐지문제도 마찬가지로 하고 한다.

합체가 황새길음하면 가평이가 찢어진다는데 마치 저들이 권력이라도 잡은듯이 늘어대고있으

《변화》를 떠들지만 속은 여전히 보수꼴통

니 어버이 여간만 커진것 같지 않다.

하지만 그로 하여 차폐된것은 민심의 저주와 규탄인것이다.

남조선정계에서는 《국민의 힘》의 녀성가족부폐지방안에 대해 성별평등에 편승한 인민주의적인 발상이자 20~30대의 남성 유권자들을 유혹하는 기만행위라고 하면서 당명칭을 《성별갈등의 힘》으로 개정하라는 조소와 비난의 목소리가 터져나왔다고 한다.

60여개의 녀성단체들이 망라된 《한국녀성단체협의회》를 비롯한 녀성단체들은 《한심한 시국판에 실망과 분노를 느낀다.》, 《성폭력피해자를 보호하지 못했다는 지적으로 녀성가족부를 없애야 한다는 론리라면 부동산문제, 산업재해 등을 막지 못하고있는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등도 마찬가지로》라면서 녀성가족부의 권한과

청년들을 짓밟고 탄압해온 범죄의 적자

10월민주항쟁(부마민주항쟁)과 광주인민봉기를 비롯한 사회의 민주화와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의 앞장에 떨치신 남조선청년들의 앞장에 떨치신 남조선청년들을 잔인하게 탄압학살하였으며 그후에도 박종철고문살해사건, 리한렬학살사건 등을 저지르고 수많은 청년학생들을 감옥으로 끌고간 극악한 파쇼독재자들을 바로 《국민의힘》패거리들이 조상으로 떠받드는 군사파쇼광들이라는것은 너무나 잘 알려진 사실이다.

역사에 남조선청년학생들에 대한 최악의 탄압사건으로 기록된 1996년 8월의 연세대학교사태도 역시 보수패당에 의해 벌어진 전 대미문의 파쇼적폭거였다.

당시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도모하고 나라의 평화와 통일에 이바지하려는 뜨거운 열기를 안고 남조선청년학생들이 연세대학교에서 벌려놓은 통일대추전행사는 철저히 평화적인 행사였다.

그런데 《문민》의 탈을 쓴 김영삼파쇼당은 적수공린의 청년학생들에게 중무장한 파쇼경찰 수만명을 내몰아 야수적으로 탄압하였다. 신성한 교정에 최루탄발사자를 장비한 장갑차를 매일 10여대의 집중포사까지 퍼붓고 투가스와 최루탄독물을 마구 퍼부어 한방울의 물, 빵 한조각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교사작전》을 벌려 청년학생들을 굶주리게 하였다. 그뿐아니라 시위진압 경찰은 물론이고 《특공대》까지 들이밀어 청년대학생들을 마구 구타하고 지어는 내대학생들에게 질승처럼 달려들어 징박은 군화로 짓밟고 때려 실신시켜서는 머리에 물이 끼얹고 질질 끌고가는 청년공노할 민행을 감행하였다.

그때의 참상에 대해 한 외신은 《경찰과 특공대가 휩쓸고 지나간 교실과 복도는 폐가 땅자했고 최루탄과, 부상진 물로 해서 건물은 엉망진창이 되었다. 연세대학교는 그야말로 폐허와 같았다.》고 보도하였다.

리명박, 박근혜의 집권시

기에도 다를바없었다. 정보원의 불법정치개입사건주범의 구속수사를 요구한 청년들에게 터무니없는 혐의를 들씌워 긴급체포하고 저들의 반인민적악정을 규탄하는 민중총궐기투쟁에 참가하였다고 하여 고등학교 학생들을 강제연행하였으며 《보안법》을 마구 휘둘러 진보적인 청년단체들을 《리적단체》로 몰아 가족하게 탄압하는 등 청년들에 대한 보수패당의 탄압행위는 그칠줄을 몰랐다.

어디 그뿐인가. 2019년에는 선거참가권령을 19살에서 18살로 낮추는 《공직선거법개정안》을 두고 절대로 통과시킬수 없다고 성명을 부르며 《국회》를 랑장판으로 만들고 나중에야 사박판 《정의투쟁》과 같은 해피망출안으로 사람들을 연행한것도 《국민의힘》의 전신인 《자유한국당》 무리들이었다.

이렇게 역대적으로 청년세대의 의로운 투쟁을 야수적으로 탄압하고 그들의 정당한 정치참여요구를 한사코 가로막아나섰던 《국민의힘》을 비롯한 보수패들이 지금에 와서 별안간 《청년문제를 해결한다.》고 엉터리로 치고있으니 까마귀가 백로가 되었다는것만큼이나 희귀한 일이 아닐수 없다.

그러나 누가 굳이 믿겠는가. 청년들에 대한 보수패당의 낮뜨거운 구애몰음이 결코 청년들의 정치참여를 찬성해서가 아니라 한국에 대한 그들의 반감을 리용하여 저들의 집권야망을 실현해보려는 비열한 권모술수에 지나 않는다는것을 남조선인민들이 모를리 없다.

개교리 삼년 두어도 확보 못된다고 본래적으로, 체질적으로 부패한 《국민의힘》에게서 청년들의 꿈과 리상을 실현하는것을 기대할수 없다는것이 지나는 남조선의 청년운동사가 새겨주는 뼈저린 교훈이다.

본시기자 김영범

비난거리로 되고있는 개막식참가문제

최근 남조선 각계에서 현 당국자의 도쿄올림픽경기대회 개막식참가문제를 놓고 비난 여론이 고조되고있다.

남조선의 언론, 전문가들속에서 남조선당국자의 올림픽개막식참가가 악화된 《한일관계개선》에는 도움이 되지 않을것이다. 당국자가 참가할 경우 앞으로 정치적인역용을 맞게 될것이다. 일본은 너무도 모르는것이다. 주장은 울려나오고있는것이 실례로 된다. 이러한 가운데 최근 어느 한 여론조사기관은 응답자의 60.2%가 남조선당국자가 도쿄올림픽에 참가하는 경우 《구결의교》로 비추

어질수 있다는 리유로 반대하고있다는 조사결과를 발표하였다.

남조선당국자의 도쿄올림픽경기대회 개막식참가가 민심의 완강한반대에 부딪치고있다는것을 보여주는것이다.

사실 이번 도쿄올림픽경기대회 기간엔 열리게 되었다고는 하지만 악성전염병사태가 세계를 휩쓸고있는것으로 하여 이번 경기대회를 위한 사람들의 관심과 기대는 날이 갈수록 떨어지고있다고 한다. 지금 일본에서는 하루에도 수천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악성전염병에 감염되고있다고 한다.

이런 형편에서 남조선당국자의 개막식참가가 이번 대회의 인기를 올려보려고 무진 애를 쓰고있는 일본의 교활한 장단에 충출하는 격이 될것이라는것이 각계 전문가이다.

도시를 넘어서고있는 일본의 독도강탈야망과 력사의목표동역시 마찬가지로이다.

알려진것처럼 일본은 지난 5월 도쿄올림픽경기대회조직위원회홍패지에 독도가 일본령토로 표기된 지도를 게시한데 이어 6월에는 독도를 《대게시마》로 표기한 동영상을 내보내었다. 최근에는 《독도영유권》을 주장하는

《방위백서》까지 빼앗기 반강하였다고 한다.

이처럼 일본의 독도강탈야망과 군주의부활책동이 날로 우세해지고있는 때에 일본에 기웃거리려는 행태를 두고 남조선인민은 민족의 자존심에 상처를 내는 행위로 비난하고있다.

지금 인천자주평화현대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이 《반성도사파도 없는 일본과의 정상회담안된다.》는 성명서를 발표하면서 현 당국자의 개막식참가를 반대하고있는것은 결코 우연한것이 아니다.

본시기자 박철남

심한 복통에 시달리고, 자살까지 하고싶을 정도이다.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까운 야만의 한국직장에서 살아남기 참 힘들다.》

《10대학생들의 사망인원 1위는 자살이다. 이 죽음을 과연 《스스로 자기의 목숨을 끊었다.》는 자살로 부를수 있을까? 성정압박, 교우관계실체, 학교폭력이라는 외부적요인으로가르 달아나기 위해 죽음을 택한 아이들에게 적합한 단어가 아닌것 같고. 자살을 가장한 타살이라고 봐야 하지 않을까?》

《내가 너에게 살려고 하면 결국 죽게 돼.》

《자살은 사회적재난인셈이다.》

이것은 사람들을 극단의 길로 몰아간 원인들에 대해 남조선인민들이 밝힌것들중의 일부이다.

《자살은 사회를 향한 처절한 절규다.》라고 인간이 인간답게 살수 있는 그런 세상을 바라며 최후수단으로 만연되고 있는것이 항저항수밖에 없는것이 정의 등도태, 악의 장글린 남조선사회라 해야 할것이다.

본시기자 김광혁



최근 남조선에서 집값, 물가, 실업률 등과 함께 자살률이 급증하고있어 사회적불안을 더해주고있다고 한다.

남조선언론 《이데일리》는 《왜 우리의 자살예방은 효과가 없었을까?》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지난해 (COVID-19)로 사망한 학생은 한명도 없었다. 하지만 스스로 생을 마감한 학생은 140명이었다. 지난해 (COVID-19)로 사망한 사람은 917명이었다. 자살자는 1만 3 799명으로 15배 많았다. 자살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가운데 1위라는 언론본도는 일상이 됐다. 한국은 언

《자살, 이것은 사회를 향한 처절한 절규이다》

하였다.

그에 의하면 10대-30대년령층에서 사망인원 1위는 자살이며 모든 연령층의 자살률이 OECD회원국과 비교해 압도적으로 높다고 한다. 70살이상의 로인 평균자살률은 약 3배이상 높고 최근에

《자살은 사회를 향한 처절한 절규다.》라고 인간이 인간답게 살수 있는 그런 세상을 바라며 최후수단으로 만연되고 있는것이 항저항수밖에 없는것이 정의 등도태, 악의 장글린 남조선사회라 해야 할것이다.

본시기자 김광혁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3차전원회의에서 조국의 미래인 어린이들을...

만한 화원으로 건설되게 될 것이다. 조국의 미래, 인류의 미래를 위하여 후대들을...

오늘도 공화국인민들은 어린이들은 나라의 왕이라고 하시며 조국의 미래를 위하여...

제일 좋은것을 어린이들에게! 세월이 갈수록 더해만 가는 어머니 그 사랑이 있어...

게 전하였다. 《...처음에는 흔히 성악가들이 하는 식으로 목청터우...

력사유적유물들을 더 많이 발굴하겠다 -차달만 사회과학원 고고학연구소 고적발굴대 대장과 나눈 대담-

력사유적유물은 우리 선조들의 창조로동과 생활과정에 이룩한 귀중한 유산이며...



행복한 조선의 어린이들

치원을 내내에 대해 간곡히 가르쳐주시고 처음으로 락아소가 나왔을 때에는 《3.8락아소》라고 부르도록 은정깊은 조치도 취해주시기 위한 수령님입니다.

그이의 현명한 령도가 있어 국가적으로 다태아건강관리 위한 보장체계가 부모없는 어린이들을 양육하는 정연한 체계가 세워지고 모든 학령전어린이들을 국가와 사회의 부담으로 키우기 위한 어린이보육교양제도도 더욱 강화발전되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숭고한 후대사랑을 그대로 이어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에 의하여 조선로동당의 육아정책관청에서는 커다란 전진이 이룩되게 되었다.

이런 사회에서 어찌 어린이들의 건전하고 훌륭한 성장을 바랄수 있었겠는가.

이 땅에 펼쳐지는 아이들을 위한 사랑의 역사를 더듬어보노라면 위대한 김일성주석의 자애로운 영상이 눈앞에 떠오른다.

그이의 현명한 령도가 있어 국가적으로 다태아건강관리 위한 보장체계가 부모없는 어린이들을 양육하는 정연한 체계가 세워지고 모든 학령전어린이들을 국가와 사회의 부담으로 키우기 위한 어린이보육교양제도도 더욱 강화발전되었습니다.

이런 사회에서 어찌 어린이들의 건전하고 훌륭한 성장을 바랄수 있었겠는가.

이런 사회에서 어찌 어린이들의 건전하고 훌륭한 성장을 바랄수 있었겠는가.

세상에서 가장 우월한 육아정책의 고귀한 전통을 마려해주시신분은 어머니수령님입니다.

그이의 현명한 령도가 있어 국가적으로 다태아건강관리 위한 보장체계가 부모없는 어린이들을 양육하는 정연한 체계가 세워지고 모든 학령전어린이들을 국가와 사회의 부담으로 키우기 위한 어린이보육교양제도도 더욱 강화발전되었습니다.

이런 사회에서 어찌 어린이들의 건전하고 훌륭한 성장을 바랄수 있었겠는가.

이런 사회에서 어찌 어린이들의 건전하고 훌륭한 성장을 바랄수 있었겠는가.

간고한 항일대전의 나날 추위에 떨고 굶주림에 시달리던 마안산의 아동단원들을 품에 안아주시며 동무들, 후대들을 사랑한다는것을 의미한다. 우리 조국은 이제 저 아이들에 의해 백화란

어린이보육교양제도의 혜택 속에 1970년에만 놓고보더라도 전국적으로 1960년에 비해 락아소수는 4.6배로, 어린이수는 3.6배로 늘어나 락아소의 절대수에 있어서 공화국은 단연 세계에서 첫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다.

《제12조 국가와 사회협동단체들은 (제일 좋은것을 어린이들에게)라는 원칙에 따라 어린이보육교양사업에 필요한 모든것을 책임지고 보장한다.》

언제인가 어느 한 나라의 집지는 자기 나라의 학교에서 아침마다 학생들이 운동장에 모여 발전련습을 진행하는 사실에 대하여 이렇게

북녘의 교육현장을 가다

교육자들의 집 (2)

그의 안해도 눈금을 적시며 어쩌면 우리 가정주부들의 심정을 이렇게까지 잘 알

고계시는지, 시작은 있어도 끝은 없는 령도자의 대해같은 사랑은 이 세상 어머니를

의 사랑을 통채로 합쳐도 비할수 없다고 말하였다. 그의 말대로 부엌에는 녀성들에게 편리한 부엌세탁기들이 그 쫘뼛 갖추어져있었다.

며 집주인이 우리를 반겨맞았다. 집주인은 외국어문학부 강좌장으로 사업하고있는 리혁철이라고 자신을 소개했다.



《세상을 둘러봐도 공화국의 교원들처럼 복받은 사람들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사랑과 믿음에는 보답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있는 지혜와 열정을 다 바쳐 그이의 사랑과 믿음에 꼭 보답하겠습니다.》

그를 따라 방에 들어서니 벽면에는 김정은령도자께서 준공식날 살림집에 입사하게 될 교원, 연구사들을 사랑의 한포에 안으시고 찍으신 기념사진이 모셔져있었다.

책상앞의 벽에 설치한 자그마한 책상에도 교원, 연구사들이 집에 들어와 학습과 교수준비를 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책상을 놓은 서재벽면에

더 많이 발굴하겠다

발굴하겠다

발굴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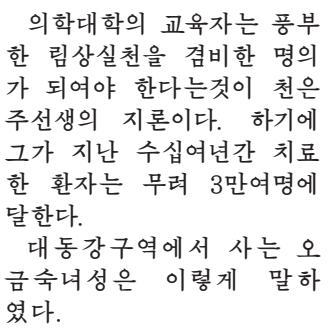
반만년의 오랜 세월 이 땅에서 살아오면서 뛰어난 민족 유산을 창조하여온 우리 선조들은 의학분야에서 독특하고 신묘한 치료방법들을 내놓았다. 그것이 바로 독자적인 특성을 가지고 우리 민족의 생활습성과 신체구조에 맞게 발전시켜온 귀중한 의학유산인 고려의학이다.

평양의학대학 고려의학부 교원인 공훈과학자, 교수, 박사 천은주선생도 있다.

《사람과 정성, 꾸준한 노력으로 못 고칠 환자의 병이 없다. 아이들에 대한 사랑을 안고 미개척분야를 헤쳐가리라!》 이런 속담집을 하며 그는 탐구의 길에 나섰다.

가도 밤마다 울면서 보챌다는 것이었다. 그것은 밤을움중이었다.

《세상에 우리 교육자들처럼 령도자의 극진한 사랑속에 사는 교육자들이 어디에도 있었습니까. 평범한 교원, 연구사에 불과한 저희들이 이렇게 중월같은 새 집을 받아안을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고려의학계의 첫 원사

취재를 위해 평양의학대학 고려의학부에 도착하니 천은주선생은 박사원생들에 대한 강의의 한중이였다. 반시간정도 지났을가.

《반갑습니다. 기다리게 해서 미안합니다.》 이렇게 말하며 천은주선생이 다가왔다. 그리 크지 않은 키에 순후해보이는 눈과 진지한 표정, 활발한 성격과 서글서글한 말씨...

《세상에 우리 교육자들처럼 령도자의 극진한 사랑속에 사는 교육자들이 어디에도 있었습니까. 평범한 교원, 연구사에 불과한 저희들이 이렇게 중월같은 새 집을 받아안을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세상에 우리 교육자들처럼 령도자의 극진한 사랑속에 사는 교육자들이 어디에도 있었습니까. 평범한 교원, 연구사에 불과한 저희들이 이렇게 중월같은 새 집을 받아안을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세상에 우리 교육자들처럼 령도자의 극진한 사랑속에 사는 교육자들이 어디에도 있었습니까. 평범한 교원, 연구사에 불과한 저희들이 이렇게 중월같은 새 집을 받아안을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세상에 우리 교육자들처럼 령도자의 극진한 사랑속에 사는 교육자들이 어디에도 있었습니까. 평범한 교원, 연구사에 불과한 저희들이 이렇게 중월같은 새 집을 받아안을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세상에 우리 교육자들처럼 령도자의 극진한 사랑속에 사는 교육자들이 어디에도 있었습니까. 평범한 교원, 연구사에 불과한 저희들이 이렇게 중월같은 새 집을 받아안을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환자치료에 온갖 정성을 기울여

어떻게 되어 소아과학을 전공하게 되었는가는 물음에 천은주선생은 추억을 더듬었다.

《고려의학과정안을 마친 우리는 천은주교수선생님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선생님은 더없이 귀중한 보물인 지혜, 헌신과 직업에 대한 열의를 선사하셨습니다.》

《사람과 정성, 꾸준한 노력으로 못 고칠 환자의 병이 없다. 아이들에 대한 사랑을 안고 미개척분야를 헤쳐가리라!》 이런 속담집을 하며 그는 탐구의 길에 나섰다.

《사람과 정성, 꾸준한 노력으로 못 고칠 환자의 병이 없다. 아이들에 대한 사랑을 안고 미개척분야를 헤쳐가리라!》 이런 속담집을 하며 그는 탐구의 길에 나섰다.

《사람과 정성, 꾸준한 노력으로 못 고칠 환자의 병이 없다. 아이들에 대한 사랑을 안고 미개척분야를 헤쳐가리라!》 이런 속담집을 하며 그는 탐구의 길에 나섰다.

《사람과 정성, 꾸준한 노력으로 못 고칠 환자의 병이 없다. 아이들에 대한 사랑을 안고 미개척분야를 헤쳐가리라!》 이런 속담집을 하며 그는 탐구의 길에 나섰다.

《사람과 정성, 꾸준한 노력으로 못 고칠 환자의 병이 없다. 아이들에 대한 사랑을 안고 미개척분야를 헤쳐가리라!》 이런 속담집을 하며 그는 탐구의 길에 나섰다.

《반갑습니다. 기다리게 해서 미안합니다.》 이렇게 말하며 천은주선생이 다가왔다. 그리 크지 않은 키에 순후해보이는 눈과 진지한 표정, 활발한 성격과 서글서글한 말씨...



《사람과 정성, 꾸준한 노력으로 못 고칠 환자의 병이 없다. 아이들에 대한 사랑을 안고 미개척분야를 헤쳐가리라!》 이런 속담집을 하며 그는 탐구의 길에 나섰다.

《사람과 정성, 꾸준한 노력으로 못 고칠 환자의 병이 없다. 아이들에 대한 사랑을 안고 미개척분야를 헤쳐가리라!》 이런 속담집을 하며 그는 탐구의 길에 나섰다.

《사람과 정성, 꾸준한 노력으로 못 고칠 환자의 병이 없다. 아이들에 대한 사랑을 안고 미개척분야를 헤쳐가리라!》 이런 속담집을 하며 그는 탐구의 길에 나섰다.

《사람과 정성, 꾸준한 노력으로 못 고칠 환자의 병이 없다. 아이들에 대한 사랑을 안고 미개척분야를 헤쳐가리라!》 이런 속담집을 하며 그는 탐구의 길에 나섰다.

《사람과 정성, 꾸준한 노력으로 못 고칠 환자의 병이 없다. 아이들에 대한 사랑을 안고 미개척분야를 헤쳐가리라!》 이런 속담집을 하며 그는 탐구의 길에 나섰다.

《사람과 정성, 꾸준한 노력으로 못 고칠 환자의 병이 없다. 아이들에 대한 사랑을 안고 미개척분야를 헤쳐가리라!》 이런 속담집을 하며 그는 탐구의 길에 나섰다.

환자치료에 온갖 정성을 기울여

어떻게 되어 소아과학을 전공하게 되었는가는 물음에 천은주선생은 추억을 더듬었다.

《고려의학과정안을 마친 우리는 천은주교수선생님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선생님은 더없이 귀중한 보물인 지혜, 헌신과 직업에 대한 열의를 선사하셨습니다.》

《사람과 정성, 꾸준한 노력으로 못 고칠 환자의 병이 없다. 아이들에 대한 사랑을 안고 미개척분야를 헤쳐가리라!》 이런 속담집을 하며 그는 탐구의 길에 나섰다.

《사람과 정성, 꾸준한 노력으로 못 고칠 환자의 병이 없다. 아이들에 대한 사랑을 안고 미개척분야를 헤쳐가리라!》 이런 속담집을 하며 그는 탐구의 길에 나섰다.

《사람과 정성, 꾸준한 노력으로 못 고칠 환자의 병이 없다. 아이들에 대한 사랑을 안고 미개척분야를 헤쳐가리라!》 이런 속담집을 하며 그는 탐구의 길에 나섰다.

《사람과 정성, 꾸준한 노력으로 못 고칠 환자의 병이 없다. 아이들에 대한 사랑을 안고 미개척분야를 헤쳐가리라!》 이런 속담집을 하며 그는 탐구의 길에 나섰다.

《사람과 정성, 꾸준한 노력으로 못 고칠 환자의 병이 없다. 아이들에 대한 사랑을 안고 미개척분야를 헤쳐가리라!》 이런 속담집을 하며 그는 탐구의 길에 나섰다.

환자치료에 온갖 정성을 기울여

어떻게 되어 소아과학을 전공하게 되었는가는 물음에 천은주선생은 추억을 더듬었다.

《고려의학과정안을 마친 우리는 천은주교수선생님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선생님은 더없이 귀중한 보물인 지혜, 헌신과 직업에 대한 열의를 선사하셨습니다.》

《사람과 정성, 꾸준한 노력으로 못 고칠 환자의 병이 없다. 아이들에 대한 사랑을 안고 미개척분야를 헤쳐가리라!》 이런 속담집을 하며 그는 탐구의 길에 나섰다.

《사람과 정성, 꾸준한 노력으로 못 고칠 환자의 병이 없다. 아이들에 대한 사랑을 안고 미개척분야를 헤쳐가리라!》 이런 속담집을 하며 그는 탐구의 길에 나섰다.

《사람과 정성, 꾸준한 노력으로 못 고칠 환자의 병이 없다. 아이들에 대한 사랑을 안고 미개척분야를 헤쳐가리라!》 이런 속담집을 하며 그는 탐구의 길에 나섰다.

《사람과 정성, 꾸준한 노력으로 못 고칠 환자의 병이 없다. 아이들에 대한 사랑을 안고 미개척분야를 헤쳐가리라!》 이런 속담집을 하며 그는 탐구의 길에 나섰다.

《사람과 정성, 꾸준한 노력으로 못 고칠 환자의 병이 없다. 아이들에 대한 사랑을 안고 미개척분야를 헤쳐가리라!》 이런 속담집을 하며 그는 탐구의 길에 나섰다.

환자치료에 온갖 정성을 기울여

어떻게 되어 소아과학을 전공하게 되었는가는 물음에 천은주선생은 추억을 더듬었다.

《고려의학과정안을 마친 우리는 천은주교수선생님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선생님은 더없이 귀중한 보물인 지혜, 헌신과 직업에 대한 열의를 선사하셨습니다.》

《사람과 정성, 꾸준한 노력으로 못 고칠 환자의 병이 없다. 아이들에 대한 사랑을 안고 미개척분야를 헤쳐가리라!》 이런 속담집을 하며 그는 탐구의 길에 나섰다.

《사람과 정성, 꾸준한 노력으로 못 고칠 환자의 병이 없다. 아이들에 대한 사랑을 안고 미개척분야를 헤쳐가리라!》 이런 속담집을 하며 그는 탐구의 길에 나섰다.

《사람과 정성, 꾸준한 노력으로 못 고칠 환자의 병이 없다. 아이들에 대한 사랑을 안고 미개척분야를 헤쳐가리라!》 이런 속담집을 하며 그는 탐구의 길에 나섰다.

《사람과 정성, 꾸준한 노력으로 못 고칠 환자의 병이 없다. 아이들에 대한 사랑을 안고 미개척분야를 헤쳐가리라!》 이런 속담집을 하며 그는 탐구의 길에 나섰다.

《사람과 정성, 꾸준한 노력으로 못 고칠 환자의 병이 없다. 아이들에 대한 사랑을 안고 미개척분야를 헤쳐가리라!》 이런 속담집을 하며 그는 탐구의 길에 나섰다.

환자치료에 온갖 정성을 기울여

어떻게 되어 소아과학을 전공하게 되었는가는 물음에 천은주선생은 추억을 더듬었다.

《고려의학과정안을 마친 우리는 천은주교수선생님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선생님은 더없이 귀중한 보물인 지혜, 헌신과 직업에 대한 열의를 선사하셨습니다.》

《사람과 정성, 꾸준한 노력으로 못 고칠 환자의 병이 없다. 아이들에 대한 사랑을 안고 미개척분야를 헤쳐가리라!》 이런 속담집을 하며 그는 탐구의 길에 나섰다.

《사람과 정성, 꾸준한 노력으로 못 고칠 환자의 병이 없다. 아이들에 대한 사랑을 안고 미개척분야를 헤쳐가리라!》 이런 속담집을 하며 그는 탐구의 길에 나섰다.

《사람과 정성, 꾸준한 노력으로 못 고칠 환자의 병이 없다. 아이들에 대한 사랑을 안고 미개척분야를 헤쳐가리라!》 이런 속담집을 하며 그는 탐구의 길에 나섰다.

《사람과 정성, 꾸준한 노력으로 못 고칠 환자의 병이 없다. 아이들에 대한 사랑을 안고 미개척분야를 헤쳐가리라!》 이런 속담집을 하며 그는 탐구의 길에 나섰다.

《사람과 정성, 꾸준한 노력으로 못 고칠 환자의 병이 없다. 아이들에 대한 사랑을 안고 미개척분야를 헤쳐가리라!》 이런 속담집을 하며 그는 탐구의 길에 나섰다.

환자치료에 온갖 정성을 기울여

어떻게 되어 소아과학을 전공하게 되었는가는 물음에 천은주선생은 추억을 더듬었다.

《고려의학과정안을 마친 우리는 천은주교수선생님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선생님은 더없이 귀중한 보물인 지혜, 헌신과 직업에 대한 열의를 선사하셨습니다.》

《사람과 정성, 꾸준한 노력으로 못 고칠 환자의 병이 없다. 아이들에 대한 사랑을 안고 미개척분야를 헤쳐가리라!》 이런 속담집을 하며 그는 탐구의 길에 나섰다.

《사람과 정성, 꾸준한 노력으로 못 고칠 환자의 병이 없다. 아이들에 대한 사랑을 안고 미개척분야를 헤쳐가리라!》 이런 속담집을 하며 그는 탐구의 길에 나섰다.

《사람과 정성, 꾸준한 노력으로 못 고칠 환자의 병이 없다. 아이들에 대한 사랑을 안고 미개척분야를 헤쳐가리라!》 이런 속담집을 하며 그는 탐구의 길에 나섰다.

《사람과 정성, 꾸준한 노력으로 못 고칠 환자의 병이 없다. 아이들에 대한 사랑을 안고 미개척분야를 헤쳐가리라!》 이런 속담집을 하며 그는 탐구의 길에 나섰다.

《사람과 정성, 꾸준한 노력으로 못 고칠 환자의 병이 없다. 아이들에 대한 사랑을 안고 미개척분야를 헤쳐가리라!》 이런 속담집을 하며 그는 탐구의 길에 나섰다.

환자치료에 온갖 정성을 기울여

어떻게 되어 소아과학을 전공하게 되었는가는 물음에 천은주선생은 추억을 더듬었다.

《고려의학과정안을 마친 우리는 천은주교수선생님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선생님은 더없이 귀중한 보물인 지혜, 헌신과 직업에 대한 열의를 선사하셨습니다.》

《사람과 정성, 꾸준한 노력으로 못 고칠 환자의 병이 없다. 아이들에 대한 사랑을 안고 미개척분야를 헤쳐가리라!》 이런 속담집을 하며 그는 탐구의 길에 나섰다.

《사람과 정성, 꾸준한 노력으로 못 고칠 환자의 병이 없다. 아이들에 대한 사랑을 안고 미개척분야를 헤쳐가리라!》 이런 속담집을 하며 그는 탐구의 길에 나섰다.

《사람과 정성, 꾸준한 노력으로 못 고칠 환자의 병이 없다. 아이들에 대한 사랑을 안고 미개척분야를 헤쳐가리라!》 이런 속담집을 하며 그는 탐구의 길에 나섰다.

《사람과 정성, 꾸준한 노력으로 못 고칠 환자의 병이 없다. 아이들에 대한 사랑을 안고 미개척분야를 헤쳐가리라!》 이런 속담집을 하며 그는 탐구의 길에 나섰다.

《사람과 정성, 꾸준한 노력으로 못 고칠 환자의 병이 없다. 아이들에 대한 사랑을 안고 미개척분야를 헤쳐가리라!》 이런 속담집을 하며 그는 탐구의 길에 나섰다.

삼복철 더욱 흥성이는 평양탄고기집

개구리도 더위를 피해 습한 땅에 배를 대고 엮드림만큼 무더운 삼복철이다. 예로부터 우리 선조들은 무더위가 지속되는 삼복철에 보신탕으로 유명한 탄고기집을 만들어 먹으며 몸에 원기를 보충하고 더위를 이겨냈다.

평양시 통일거리에는 민족 전통음식인 탄고기집을 잘 만들어 소문난 평양탄고기집이 있다.

초복날 우리가 이곳을 찾았을 때 소문 그대로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있었다.

김옥희봉사부원의 안내를 받으며 식사실로 들어서니 사람들이 땀을 흘리며 탄고기집을 맛있게 먹고 있는 모습이 정겹게 느껴졌다.

삼복철 탄고기집은 죽물이 발동에 떨어지지만 해도 약이 된다고 할만큼 유명한

보신탕이어서 우리 선조들은 어느 가정에서나 즐겨 해먹었다고 한다.

이곳 탄고기집에서 봉사하는 우수한 맛과 향기가 감도는 탄고기리틀들.

탄고기리틀경연에서 여러 차례나 우수상을 받은 박영립주방장은 《여러가지 탄고기리틀들이 손님들속에서 호평을 받고있지만 뉘나 뉘나 탄고기집이 제일 인기와 있습니다.》고 말하였다.

그러면서 수습가자나 되는 탄고기리틀들의 이름을 뜬금으로 외우는것이였다.

탄고기갈비찜, 탄고기호두찜, 탄고기삼색볶음, 탄고기삼색죽, 탄고기누르미, 탄고기색말이쌈, 탄고기약밥, 탄고기남새전, 탄고기겉, 탄고기전골...

《땀을 철철 흘리며 탄고기집을 먹고있다면 힘이 막 나게 알린다고.》



라랑구역에 살고있는 김정식로인의 말이였다. 식사를 마치고 나오는 손님들마다 아직도 땀이 나는데 속은 시원하며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있었다.

오래전부터 우리 선조들은 《이열치열》(더운것으로 더운것을 다스린다는 뜻.)의 원리로 탄고기집을 즐겨 먹어왔다.

오늘도 면면히 이어지고 있는 민족전통음식인 탄고기집. 그 우수한 맛과 향기는 민족의 향취를 더욱 돋구어주고있다.

본사기자 김영준



세계의 하늘가에 공화국기를 날린 체육인들. 여자 자유술강자 안금애

공화국의 체육발전사에는 올림픽경기대회에서 뛰어난 실력으로 금메달을 쟁취하고 여자유술강자로 이름을 떨친 체육인이 있다.

그가 바로 안금애선수이다. 유술에 취미를 가지고 남다른 열정을 바쳐가던 나날에 그의 가슴속에는 세계패권을 쥘 야심찬 인생목표가 새겨지게 되었다.

그의 높은 목표와 피라는 노력은 드디어 열매를 맺어 국내에서는 물론 국제경기에서도 무시할수 없는 유술

강자로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하였다.

2012년 7월 영국에서 제30차 올림픽경기대회가 진행되었다.

조선선봉이 휘몰아친 이 경기대회에서 공화국의 첫 금메달은 안금애선수가 여자유술 52kg급경기에서 쟁취하였다.

안금애선수는 일본선수를 비롯한 유술강자들을 모두 물리치고 결승경기에 나섰다.

결승경기는 관람자들의 손에 땀을 쥐게 한 치열한 경기였다.

5분간의 경기가 무승부로 끝나 3분간의 연장경기에서 그는 상대방선수를 물리

치고 마침내 우승의 단상에 올랐다.

세계의 출판보도계는 《이번 올림픽경기대회에서의 조선의 첫 오륜녀왕 안금애》, 《조선의 첫 금메달수상자》 등으로 안금애선수의 우승소식을 전하였다.

그는 2010년, 2012년 세계컵여자유술경기대회와 제5차 세계대회 종합체육경기대회, 2005년 아시아유술선수권대회, 제15차 아시아경기대회에서도 금메달을 획득하였다.

안금애선수는 2006년에 공훈체육인칭호를, 2012년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노력영웅칭호를 수여받았다.

본사기자

산 좋고 물 맑은 아름다운 이 땅에는 어디 가나 인민의 문화후식리로 리용되는 명승지들이 많다.

그 가운데는 황해남도 재령군과 신원군의 경계에 위치한 장수산도 있다.

예로부터 《황해금강》으로도 불리워온 장수산은 해발높이 745m, 동서길이 약 12km, 북남너비 5km 정도의 넓은 지역을 차지하고있다.

장수산의 최고봉은 보적봉이다.

산발은 동쪽과 서쪽으로 뻗어있으며 여기에는 보장봉, 관음봉 등 해발높이 700m안팎의 봉우리들이 잇달려 솟아있다.

산에는 소나무, 참나무는

물론 희귀한 식물들도 많이 자라고있으며 노루, 오소리, 너구리, 여우, 산토끼, 꿩, 꿩, 꿩 같은 동물들도 많다.

이 산에는 평이 특별이 많아 《치약산》이라고도 불렸다.

《계곡미의 여왕》- 장수산

장수산의 아름다움에서 첫 자리를 차지하는것은 골짜기 풍경이다.

그 대표적인것은 장수산의 서부에 이루어진 장수산열두 굽이이다.

이것은 약 30리사이에서 너비 50~150m의 골짜기에 높이 150~200m 되는 기묘한 층암절벽들이 일두굽이의 수려한 계곡마다 일만경치를 펼쳐 그 모습이 불수룩 신비

롭고 활황한 절경을 이룬다. 게다가 골짜기로 흐르는 수질같이 맑은 물과 폭포, 못, 푸른 소나무 등이 잘 어울려 열두굽이의 자연미를 한층 북돋아준다.

우리 선조들은 장수산의 골짜기 이루어진 아름다움에 탄복하여 《금강산이 동부산악지대에 군림한 산악미의 왕자라면 장수산은 서부산악지대에 혜성같이 나타난 계곡미의 여왕》이라고 하였다.

장수산리화, 장수산습곡은 천연기념물로 등록되었다. 장수산에는 장수산성을 비롯하여 고구려 남평양유적들과 현암, 묘음사 같은 사찰 그리고 옛 사찰터들도 있다.

본사기자



장수산의 여덟굽이에 있는 막달봉

인기를 모으는 《송도》구두

공화국의 서성송도구두제작소에서 생산하고있는 《송도》상표를 단 구두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날로 커지고있다.

평양제1백화점을 비롯한 시내의 여러 백화점과 상점들에서 판매되고있는 《송도》구두에 대한 손님들의 찬사는 이 제품에 사람들의 마음속에 점점 친근하게 깃들고있음을 보여준다.

제작소에서는 구두제품의 다양화를 실현하고 수요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더 질 좋고 가벼운 신발을 만들기 위해 애쓰고있다.

이들은 기술자들과 합심하여 자체로 특별한 발모양을 가진 손님들의 구두설계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3차원발측정기를 새롭게 제작하였는데 그 정밀도가 거의 100%에 달한다고 한다.

생산에서 다품종, 소량화를 추구하고있는 제작소에서

는 수백가지의 구두도안들을 자체로 설계하고 실전에 도입하고있다.

또한 손님들의 의견을 정상적으로 종합하고 구두제작기술발전과 관련한 세계적추이도 깊이있게 연구하면서 새로운 도안들과 제작기술을 적극 탐구하고있다.

특히 주목되는것은 제작소에 인재들을 중시하는 기풍이 확고히 서있는 것이다.

기능공이 기능공을 키워 내고 인재가 인재로 육성하도록 하는 체계를 세우고 인재에 의거한 경영전략을 실현해온 나날에 제작소에서는 때 공정별에 따르는 기능공

들의 수준을 한계단 끌어올렸다고 한다.

전국신발전시회에서 제작소가 받은 상장과 메달들에는 더 좋은 구두를 만들기 위해 성실한 땀을 바쳐온 이곳 일꾼들과 종업원들의 남모르는 수고와 깃들여있다.

이곳 제작소의 종업원들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 《송도》구두제품들을 더 많이 생산하여 인민생활향상에 더 큰 도움을 줄것이다.

본사기자



단편소설

나의 선택 (4)

글 우 향 미, 그림 김 윤 일

어머니는 눈물이 얼룩진 얼굴로 서있는 나를 보더니 깜짝 놀라며 물었다.

《너 어떻게 여기까지 왔니. 무슨 일이 생겼니?》

《엄마! 뭐야. 밥은 다 레우구... 당장 선생님이 집에 오시겠다고 했는데... 난 몰라.》

나의 울먹이는 소리가 높아지지 않고 손가락을 입가에 세운 어머니는 말소리에 놀라 잠을 깨려는 아이를 두드리며 그대의 불에 살면서 자기 불을 가져다대고 부비었다.

그것을 보는 순간 나는 부아가 치밀어 언제부터 멎던 말이 저도 모르게 튀어나왔다.

《제, 엄마불은 진짜 동네 불이야. 동네불.》

어머니는 그만 어이가 없었는지 밝게 웃음을 짓더니 나를 억지로 잡아끌고 방안에 들어갔다.

나는 방 안에서 나를 보며 웃고있는 너만을 보고는 저도 모르게 놀라며 웅얼거렸다.

《아니, 선생님!》

선생님은 이미 어머니와 할 말을 다 나누었는듯 의미있는 눈길로 나를 쳐다보았다. 그러나 선생님의 아이메운

어... 순간간에 어머니에 대한 끄까운 감정이 증발해버린 나는 선생님에게 손목을 잡히운채 자리에 앉았다.

우리가 선생님의 집을 나선 때는 별다른 아물거림이 없는 밤이었다.

어머니의 등에 업혀 한절반 졸면서도 나는 작은 손을 뻗쳐 어머니의 불을 살거나니 끌어보았다. 따뜻한 불은 여전히 부드럽고 향긋한 것이 넘치는것만 같았다.

어머니의 나직한 말소리가 들렸다.

《진화야.》

《응?》

《베고프지?》

《응, 베고파.》

《그런데 밥이 다 라서 어쩌니. 정말 너에게 미안하다. 이 엄만 일이 바쁘다면서 언제 한번 우리 진화를 잘 돌봐주지 못했구나.》

《엄마!》 나는 울지 않으려고 어머니잔등에 얼굴을 꼭 박았다.

《그때는 밤이 라면 새로 지을 쌀이 넉넉치 못하던 시절의 시기였지.》

그 시기가정과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주민들의 건강을 위해 뛰어나고도 성차

지 않아 이렇게 밤길까지 또 걸던 나의 어머니였다. 얼마나 힘이 들고 피곤할까. 난 그런것도 모르고...

《엄마, 나 베고프지 않아. 그저 엄마만 있으면 돼.》

하지만 내 말이 엉터리라는 것을 증명이라도 하듯이 배에서는 그만 알곡은 꼬르륵소리가 들렸다.

《그것 봐. 지금 네 배가 <진화는 거짓말을 해요.> 하고 말하고있지 않니.》

《아니야.》 하는데 연방 꼬르륵소리가 들리자 어머니는 까르르 웃음을 터쳤다.

나도 어머니의 그 맑은 웃음소리가 좋아서 함께 깔깔 웃었다.

현관앞에 다달으니 꺼져있던 우리 집 불이 환히 켜 있었다. 바베 집에 들어서니 아버지가 마중나오며 우리를 맞이하였다.

어머니는 늦은 자신이 민망스러워 어쩔바를 몰라 허둥했다.

《어떻게 하면 좋아요, 진화아버지. 밤이 그만...》

《됐어, 오늘 저녁준비는 내가 다 했소.》 하며 아버지는 빙그레 웃었다.

어머니와 나는 밥상위에

탁구는 젊은이들뿐 아니라 중년기, 로년기사람들에게도 알맞는 건강체육종목으로 되고있다.

탁구는 중년기이후에 울수 있는 협동 및 지지운반반을 낮아지는것을 막는것으로 하여 로화방지에 좋다고 한다.

탁구는 몸을 따라 운동하게 되므로 정신육체적으로

매우 긴장하며 순간적인 동원력이 요구되는 운동이다. 따라서 팔다리근육의 탄력성이 높아지고 근육과 골관

매일 또는 한주일에 2~3번 정도 자기 몸에 맞게 해야 한다.

탁구는 주로 한쪽편만 쓰는 운동이기때문에 운동을 끝낸 후 다른 쪽의 팔과 어깨 그리고 몸통운동을 비롯하여 가벼운 체조를 하는것이 좋다.

본사기자

나는 철이 들면서야 그날이 아버지, 어머니가 결혼식을 한 날이라는것을 알았다.

웃음을 지은 아버지가 날 일으켜세웠다.

《오늘 우리 진화의 노래를 한번 들어보자구나.》

《우리 엄마 기쁘게 한번 웃으면...》 하고 시작을 멘나의 청아한 노래소리는 화기가 도는 집안에 울려퍼졌다.

노래가 끝나자 정적이 박수를 치는 어머니의 눈가에 눈물이 고여있었다.

《그럼 이젠 내 차례야.》 하면서도 아버지는 정작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다.

《어보, 고맙소. 그저 늘 나와 진화만을 위해주느라 당신한테 차려진건 아무것도 없구만. 난 당신을 행복하게 해주지 못했것 같아 마음이 무겁소. 정말 미안하오.》

어머니의 두볼로는 맑은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다. 어머니는 아버지의 투박한 손을 꼭 부여잡았다.

《무슨 소릴 해요, 새삼스럽게. 난 이이상 더 바랄게 없어요. 당신의 일이 잘되구 또 우리 진화가 잘 자라구. 그러면 충분해요. 난 오늘 정말 기뻐요. 글썽 우리 진화가 엄마불은 동네불이라고 사랑스러운 칭호를 달아주었던 말이예요. 동네불, 얼마나 좋아요. 당신의 사랑, 진화의 사랑, 주민들의 사랑속에 떠받들려있는것이... 이제 행복이 아니면 과연 무엇이 행복이겠어요.》



왔나요?》

나는 어느새 고구마 한개를 게논 감추듯 해버리고 또 큰것을 넘보며 물었다.

《오늘이 우리 집에서는 의미있는 날이란다.》

《의의있는 날?! 무슨 날이냐?》

《글썽, 잘 생각해보렴.》

《엄마가 아버지와 만나서... 어쨌든 좋은 날이란다.》

《말하자면 어머니하고 큰 <약속>을 한 날이지.》

《큰 <약속>?! 그런데 난 왜 몰랐을가?》

《너야 모를수밖에.》

아버지는 내 코를 잡아흔들며 깔깔 웃음을 터뜨렸다.

국가비밀문화유산 회령오지제조술

오지그릇은 붉은찰흙으로 형태를 만들고 800℃의 온도에서 구워 굳힌 다음 오지물을 입혀 다시 1200℃의 온도에서 구워낸 도기의 한 형태이다.

공화국에서 대표적인 오지는 회령오지이다.

회령오지는 색깔이 독특하고 형태가 소박하며 다양한 품종을 이루고있을뿐 아니라 그 실용적가치도 높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져있다.

일반적으로 오지의 색깔은 누른밤색, 붉은밤색, 푸른밤색, 검은밤색이 기본이지만 회령오지는 다른 지방에서 생산되는 오지와는 다르게 철분이 투명하지 않으면서도 은근한감이 느껴지고 윤기가 있다.

또한 《해서색》(검은 바탕에 푸르면서 흰빛이 도는 색)이 철분의 결면에 입혀져 제품의 세기를 보장하면서도 그 아름다움이 신비

하게 느껴진다.

회령오지의 실용적가치는 모든 재질이 부패에 비해 무게가 가벼워 다루기 편리하며 열기결정성과 열전도성이 높은것이다.

회령오지인 쌀독, 김장독 등은 몇십년이 지나도 저절로 터지는 일이 없었고 유약이 잘 벗겨지지도 않았다.

회령오지그릇에 음식을 담은면 쉽게 변질도 안되고 인차 쉬지 않는다고 한다.

본사기자



우리 민족의 민속무용가운데는 삼보춤이 있다.

예로부터 널리 장려되어온 이 춤은 농악무에서 남자들이 모자의 꼭지끝에 흰색의 긴 천오리나 종이오리, 새털을 매달고 추는 춤이다.

춤에 리용되는 상모의 종류에 따라 소삼보춤, 대삼보춤, 털삼보춤 등으로 구분된다.

재치있고 다양한 기교들로 구성된 삼보춤은 여러명의 상모꾼들이 같은 또는 다양한 상모돌리기를 동시에 수행하는것으로서 집단적으로 짜인 물동의 조화미

를 보여준다.

오늘 삼보춤은 농악무의 흥취를 돋구는 특색있는 형식의 춤으로 다양해졌다.

대표적인 삼보춤은 2011년에 피바다구단에서 창작한 민속무용 《삼보춤》을 들수 있다.

관련악 《청산별에 풍년이 왔네》의 반주에 맞추어 상모의 전통적인 기교로 독특한 기교동작들을 배합하여 추는 삼보춤은 사람들에게 깊은 감흥을 준다.

본사기자

